

보건학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윤리 쟁점

이선희^{1,2}

¹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²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Research Ethics Issues that Frequently Arise in Health Services Researches

Sun-Hee Lee^{1,2}

¹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²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s part of efforts to internally strengthen the research ethics capacity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e have compiled research ethics issue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public health researches. Firstly, when reusing research reports or dissertations as pap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avoid unfair duplicate publication. Compliance with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emption process is required, and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devoted during the text recycling process to prevent self-plagiarism or unjust duplicate publication.

Keywords: Research ethics; Health services researches

보건행정학회지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연구윤리 규정에서는 연구윤리심의회를 정비하고 보건행정학회의 연구윤리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구윤리 강화 활동의 연장선으로, 학회지 투고논문들의 특성상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연구윤리 쟁점들을 정리하여 논문투고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성과물을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후, 이를 재구성하여 학회논문으로 투고하는 경우, 즉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또는 매체전환(media conversion)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1]. 연구자 자신의 성과물을 재활용할 경우, 연구성과 확산 등을 이유로, 일정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핵심 조건인 저작권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2].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재정리하자면, 공동저자 및 일차 연구물 발행기관의 출판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하

며, 이차출판으로 인해 연구실적을 이중으로 인정받는 등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1], 무엇보다도 이차출판물에 일차출판물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3]. 본 학회지에서는 이미 연구보고서를 일차출판물로 발간하고 투고하는 이차출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표지에 일차출판물을 활용하였음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도 이차출판 사례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4], 학위논문을 재활용하였음을 논문표지에 명시하도록 하여, 중복게재나 자기표절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투고규정에 따라 본 학회지가 저작권을 갖는 만큼,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활용하여 이차출판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지의 동의를 득해야 함을 투고자들은 숙지해야 한다.

셋째, 보건학 연구에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면제와 관련된 이슈이다. 인간대상 연구에서도 IRB 심의는 필수요건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IRB 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연구자들

Correspondence to: Sun-Hee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5 Magogdong-ro 2-gil, Gangseo-gu, Seoul 07804, Korea
Tel: +82-2-6986-6238, E-mail: lsh0270@ewha.ac.kr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으로, 본 학회지를 포함하여 보건학에서 흔히 시도되는 연구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생명윤리법 제15조 2항 및 동법의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5].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IRB 심의 조차 받지 않고 투고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심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심의 면제에 해당하더라도 IRB 심의 면제절차를 거쳐서 IRB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6], 논문투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텍스트 재활용 이슈이다. 텍스트 재활용은 “저자가 이전 출판물의 텍스트를 새로운 원고에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기표절은 “이전 연구에서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적절한 인용표시가 없거나 모호하게 인용표시를 하여 새로운 출판물에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5]. 텍스트 재활용과 자기표절 모두, 자신의 이전 연구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부당한 중복게재로 간주된다[4]. 보건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타출판물에 사용된 텍스트를 별도의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적지 않았으나 자기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이기는 하나, 선행연구 인용을 누락하거나 여전히 표나 그림 등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공지능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챗GPT를 연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7], 보건학 분야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구역량 못지않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 태도와 준수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연구환경하에서 연구하고 있음을 연구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

REFERENCES

1.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enter for Research Ethics. Media conversion of research paper and duplicate publication issues. NRF Webzine [Internet] 2019 May [cited 2023 Sep 11]. Available from: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5/sub2_3.php
2. Lee SH. Changing policy trends in research ethics. Health Policy Manag 2021;31(2):145-147. DOI: <https://doi.org/10.4332/KJHPA.2021.31.2.145>
3. Lee IJ. What is secondary publication? NRF Webzine [Internet] 2019 May [cited 2023 Sep 11]. Available from: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5/sub2_3.php
4. Lee HB. Unfair duplicate publication emerged as a research ethics issue. NRF Webzine [Internet] 2023 Jan [cited 2023 Sep 11]. Available from: https://webzine.nrf.re.kr/nrf_2301/sub_2_03.html
5. Enforcement Rule of Bioethics and Safety Act: Supplementary Provisi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852 (Dec 30, 2021) [Internet]. Sejo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cited 2023 Sep 1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3%9D%EB%A%85%EC%9C%A4%EB%A6%AC#undefined>
6. Lee SH. Regard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issues of health service research field. Health Policy Manag 2022;32(1):1-2. DOI: <https://doi.org/10.4332/KJHPA.2022.32.1.1>
7. Ddongascience. chat-GPT threatens scientific transparency. Dongascience [Internet] 2023 Jan 27 [cited 2023 Sep 11]. Available from: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8226>